

“역시 유재석” 올해 빛낸 코미디언 6년 연속 1위

갤럽 조사 지지율 38.3% ... 2위 강호동·3위 박나래

올해도 유재석이다. 개그맨 유재석(45·사진)이 2017년을 빛낸 코미디언·개그맨 부문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1천700명을 대상으로 올 한 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코미디언·개그맨을 2명까지 설문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재석은 응답자 38.3%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유재석은 한국갤럽이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 코미디언·개그맨 분야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010년과 2011년 잠시 2위에 머물렀다가 2012년부터 다시 6년 연속 1위에 올라 10년 넘게 ‘국민MC 유스님’으로 불리고 있다. 2위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강호동(23.3%)이다. 과거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과 MBC TV ‘황금어장-무릎파도사’ 등을 통해 유재석과 함께 양대 국민MC로 군림했던 그는

2011년 잠정 은퇴했다가 복귀한 뒤 JTBC ‘아는 형님’과 ‘한끼줍쇼’, tvN ‘신서유기’, 올리브TV ‘섬총사’ 등을 통해 예전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갤럽은 “2012년 이후 작년까지 ‘유재석 시대’가 이어졌지만 복귀 후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강호동이 2013년 4위, 2014년 5위, 2015~2016년 3위, 올해 2위로 상승해 과거 팽팽했던 ‘양강구도’가 재현될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3위는 박나래(15.9%)로, 여성 개그맨으로서는 유일하게 10위 안에 들었다. 2006년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그는 2012년 tvN ‘코미디 빅리그’를 통해 점차 이름을 알린 끝에 올해 MBC TV ‘나 혼자 산다’,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밖에 10위권에 신동엽, 이경규, 이수근, 김준호, 양세형, 김준현, 김병만이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KBS 다큐멘터리 ‘순례’, 코리아 UHD 어워드 2017 대상에

라다크·안데스·세네갈 등 여정 속 삶의 의미 전달

4대륙 광활한 자연풍경에 압도적 영상미 더해 눈길

KBS 1TV가 지난 9월 4부작으로 선보인 대기 획 UHD(초고화질) 다큐멘터리 ‘순례’(사진)가 ‘코리아 UHD 어워드 2017’(Korea UHD Award 2017)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코리아 UHD 어워드’는 국내 우수 UHD 콘텐츠들을 대상으로 차세대 방송용 콘텐츠 제작 동기를 부여하고 재능 있는 창작자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주관한다. ‘순례’는 인간의 삶을 순례라는 명제로 풀어낸 휴먼다큐멘터리로 사랑, 깨달음, 치유 등 인류 보편의 감성 코드를 광활한 자연 풍경에 녹여냈다.

특히 인도 북부 라다크 지역, 페루 안데스 산맥과 세네갈 레트바 호수, 미국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 등 4대륙, 지구 4분의 1바퀴에 걸친 여정을 최첨단 4K 카메라와 특수촬영장비를 이용해 UHD의 압도적인 영상미로 담아냈다. KBS는 이날 또 ‘순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도 받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가족 소중함 깨닫는 계기 되길”

‘고백부부’ 종영 하병훈 PD

권혜주 작가 “진심담아 집필”

늦은 밤 부부들을 맥주 한 캔씩 들고 텔레비전 앞에 앉게 한 KBS 2TV 금토극 ‘고백부부’의 이야기를 풀어낸 권혜주 작가는 놀랍게도 미혼이었다. 서른셋 젊은 나이보다도 옛된 미소를 지닌 권 작가는 ‘고백부부’의 인기에 대해 “저 역시 진심을 다해 주인공들에게 공감했을 뿐”이라고 수줍게 웃었다.

‘고백부부’가 종영한 지 약 3주, 아직 여운이 남은 11일 서울 합정동의 한 카페에서 권 작가와 하병훈 PD(사진)를 만나 작품의 뒷이야기를 들었다.

하 PD는 “KBS가 파업 중이라 모습을 비추기가 조심스럽긴 하다”면서도 “그래도 드라마가 시청률이 5~6% 정도 나왔는데 마치 15~16% 나온 것처럼 호평을 해주셔서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그러면서 “타임슬립 소재에 웹툰 원작이라 내부에서 반대로 많았고 저 역시 부담이 컸지만, 대중이 우리 드라마를 통해 정말 과거에 간 것처럼 간접체험을 하고 매화 옆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출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아내가 ‘독박육아’ 중이라는 하 PD는 권 작가가 대본 집필을 했지만 소소한 육아 에피소드에는 직접 아이디어를 많이 냈다고 한다.

권 작가는 “아이를 안고 밥을 빨리 먹는 등 육아 에피소드는 PD님이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다”며 “또 주변 선배 중에 육아하는 사람이 많아 그들의 관점에서 많이 썼다. 아이를 안아야 해서 짧은 치마를 못 입는 등의 사연은 주부들이 많이 듣는 라디오에서 접했다”고 설명했다.

‘고백부부’에서 가장 시청자가 눈물을 글썽이게 한 부분은 진주(장나라 분)의 엄마(김미경)와 자식이었다. 과거에는 엄마만 있고, 현실에는 자식만 있는 그 상황이 결국 언젠가는 둘다 만날 수는 없는 지점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온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진주를 과거에 잡아둘 장치가 필요했고, 그게 엄마였어요. 만약 엄마가 없었다면 진주는 바로 아이를 보러 현실로 돌아갔겠죠? 제가 가장 많이 울면서 글을 썼던 장면들도 다 엄마가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엄마가 진주에게 ‘네 새끼한테 가라’고 했던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그건 자식을 키워낸 엄마만이 아는 감정이잖아요. 진



주는 엄마 때문에 과거에 머물렀지만, 결국 엄마의 그 말을 듣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게 되죠.” (권 작가) 권 작가와 하 PD는 극 중 ‘첫사랑의 아이콘’ 남길 선배(장기웅)의 예상보다

큰 인기에 잠시 흔들리기도 했다는 뒷이야기도 웃으며 털어냈다.

두 사람은 “주변에서 남길 선배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잠시 흔들리기도 했다”면서도 “서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하고자 했던 얘기를 끝까지 들려주자고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길이 인기에 결론을 원래대로 냈다가는 남길 팬들에게 매장당하는 게 아닐까 걱정도 했다”고 웃으며 덧붙였다.

하 PD는 “남길로 인해 시청자의 가슴도 뛰어야 했기에 수많은 배우를 접촉했는데 새로운 인물을 찾고 싶었다”며 “아이유의 ‘분홍신’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장기웅 씨를 보고 제가 설레서 바로 미팅을 잡았다. 기용 씨가 너무 잘 해줬다”고 설명했다. 하 PD는 또 처음 시도한 장나라-손호준 조합에 대해 “나라 씨는 원래 주름을 좀 없애주려고 시스템을 준비했는데 워낙 동안이라 오히려 주름을 그려야 했다”며 “두 사람이 외형적으로도 잘 어울리고 연기도 너무 잘해줬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하 PD와 권 작가는 시트콤 ‘마음의 소리’부터 호흡을 맞춰왔다. 그러다 웹툰 ‘한 번 더 해요’의 1·2화를 보고 ‘고백부부’를 구성하기 시작, 다소 냉담했던 주변을 오랜 기간 설득해 결국 성공시켰다.

권 작가는 “1년에 걸쳐 PD님과 조금씩 이야기를 발전시켜나갔다”고, 하 PD는 “마음의 소리’를 할 때 아이가 태어나서 권 작가의 이야기에 특히 공감이 많이 갔다”고 말했다.

인고의 시간을 거쳐 탄생한 작품은 결국 올해 KBS 연기대상 여러 부분에도 후보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하 PD는 특별히 받고 싶은 상이 있느냐는 물음에 “육성이 전혀 없지만 만약에 주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이라며 “뽀빠이 노래도 뛰어난 공감능력을 보여준 배우들이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재)	5:50 허하랜드 스페셜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2TV 생생정보	00 MBC 뉴스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억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해피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꽃피여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55 중계방송 정당정책 토론회	10 좋은 아침
10	00 2017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50 저글러스(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55 생생정보 스페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재)		00 투깝스 (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독 보람설계 (재)
1	00 특집다큐 2017 대한민국 인구절벽 보고서 2부작 50 건강혁명	00 특선다큐 조애나 럼리의 일본기행	00 TV속의 TV	55 닥터 365
2	10 월요기획 2부작 태권도, 다시 세계를 품다	00 생활의 발견 (재) 50 자동차공부책상 위기 2	10 헬로키토 신비한 자연교실	00 뉴스브리핑
3	00 특집다큐 덕의 발상은 안전합니까? 50 UHD 한식 (재)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재)	05 텔레몬스터 10 지오메가 40 발칙한 동거 반방 있음 스페셜	
4	00 4시 뉴스집중			00 영재발굴단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35 UHD 한식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상앨범 산 30 제보자들(재)	00 MBC 뉴스 30 전생애 웬수들 (재)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팔도방송 스페셜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SBS 엠큐멘터리 모래시계-세상 너머로
7	00 KBS 뉴스 7 35 뿌리 깊은 나무 한창기의 유산	50 내 남자의 비밀	15 전생애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토크라크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저글러스(재)	35 로봇이 아니야 (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40 글로벌 다큐멘터리-세계의 산맥			
10	30 KBS 뉴스라인	00 저글러스	00 투깝스	00 의문의 일승
11	00 세계건강기행 20 해외결작드라마 닥터 포스터 시즌2	10 철부지 브로망스-웅피클럽	10 특집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10 컬러 오브 클래식	35 영화가 좋다(재)	15 위대한 영화의 탄생지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아시아 풍속 기행 (아시아의 문화유산) 일생 최대의 축제 인도 결혼식)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정수의 비밀(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도토리묵국과 굴무침)	15:00 우주탐험가 챗 15:15 꼬마기사 마이코 15:30 오도트, 이상한 아이들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6:00 엄마 깨두리 16:15 두다다롱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덩동쟁 유치원1~2(재) 17:1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7:3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17:45 호기심 소녀 도트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4 19:00 몬카트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19:30 EBS뉴스 19:55 극한직업 <대물양식 참돔과 칠갑상어> 20:40 다큐오늘 <해인사 김장대적전> 20:50 세계대마기행 <소소한 낭만여행 시드니> 21:30 한국기행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3:35 메디컬 다큐 - 7요일 24:25 세상의 모든 범죄 24:30 한국영화특선 <사랑하는 사람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48년생 우회적인 방법보다 직접적인 실행이 더 현명하다. 60년생 인생의 전환점을 이끄는 새로운 길목에 들어선다. 72년생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나, 84년생 의연한 자세로 임함이 백 번 나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5, 56	午	42년생 참된 가치와 함께 하자. 54년생 핵심 골격이 수립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66년생 불상사가 생길 여지는 충분하다. 78년생 고목이 봄을 만나서 싹을 트일 수 있다. 90년생 기본적인 사항에 충실해야 할 때임을 분명히 알라. 행운의 숫자 : 57, 14
丑	49년생 성사시킬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61년생 길함이 생기는 근원적인 계기가 마련 될 것이나, 73년생 발버둥치면서 매달려 보았자 결과적으로는 무의미할 뿐이다. 85년생 대풍 구름으로 하늘을 보라는 이치이다. 행운의 숫자 : 06, 47	未	43년생 근본적인 것부터 파악하자. 55년생 확인되지 않았다면 적용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67년생 새옹지마요, 전회위복의 이치로다. 79년생 평상시에 찾던 것이 코앞에 와 있느니라. 91년생 평 대신 답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94, 85
寅	50년생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기운들이 보인다. 62년생 지금 여유를 부리고 있을 계제가 못되느니라. 74년생 지난 날 언행 했던 바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날이니라. 86년생 기호와 취향까지 고려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행운의 숫자 : 76, 87	申	44년생 번거로움을 차지하고 출선수범한다면 효과는 배가 되리라. 56년생 의무를 다 한 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맞다. 68년생 약간만 신경 써서 마무리한다면 대단한 성과 올릴 수 있다. 80년생 활기차게 추진해도 되는 운세이다. 행운의 숫자 : 04, 80
卯	51년생 낙관적으로만 보면서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막연한 작각을 한다면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되어 있다. 63년생 경제성에 일조할 것이다. 75년생 옛 것으로부터 길함이 따를 수다. 87년생 돈의 운용에 따라서 길흉이 좌우되리라. 행운의 숫자 : 14, 66	酉	45년생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쉬워질 것이다. 57년생 부담스럽다고 하여 그대로 두면 탈이 나게 될 것이나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69년생 지출은 투자가 될 것이다. 81년생 세대에 좌우되지 말고 본래의 뜻대로 하라. 행운의 숫자 : 97, 46
辰	52년생 성과의 운력이 보일 것이다. 64년생 총련해 극복할 수 있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76년생 말만으로는 아니 되니 과감하게 실행함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88년생 대국적으로 임해야 실속 있는 성취를 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4, 55	戌	46년생 불투명하여 알 수 없었던 것이 흑과 백으로 명암을 분명히 하리라. 58년생 좋은 이웃은 멀리 있는 형제보다 훨씬 낫다. 70년생 여러 사람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난처해지리라. 82년생 길고 긴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6, 88
巳	53년생 기운이 상승하여 길지로 안내하는 판도이다. 65년생 취약점이 있든지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 되느니라. 77년생 신중을 기한다면 커다란 액이라 하더라도 비켜 가리라. 89년생 함께하는 과정에서 기회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98, 28	亥	47년생 발전적인 국면으로 접어든 환경이다. 59년생 주어질 기회는 천재일우요, 구유일모라 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나, 71년생 관계나 체면을 의식한다면 결렬됨이 된다. 83년생 진실함이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9, 3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